

# 신라왕경의 도시상징성 연구

-토속신앙 관점에서 본 경관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曹世煥

경주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 환경조경학 전공

## A Study on the Urban Symbolism of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 Focused on primitive religion and it's affects on the Matter and Form -

Cho, Se-Hwan

Faculty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System, Kyongju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the various symbolic meanings and functions of landscape elements which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contains. and what is the symbolism and identity of the city. Basically, this research took the thought of the place and the theory of cognition on landscape as a research tool, and undertook the process of surveying the physical surroundings of the city such as mountains, forests, tumuluses, mountain fortress walls. etc. Especially, the study referenced to a myth, thought, and a tale related to them of the surroundings. The research scope in time had been reached to the year of BC 57 which is beginning year of Shilla Dynasty from AD 467 which is year of introduction of new urban block system delivered from Dang Dynasty of ancient China.

The results of research showed symbolic meanings of mountains and forests which is surrounding the Shilla Capital from 4 directions of east, west, south and north. Namely, it was the places that the king of the kingdom of Shilla decent into the earth from the heaven. Also, the tumuluse`s which are located on the center of the capital imitated the surrounding mountains in forms, meanted the place that the dead king rised to heaven. All of these symbolized the Capital City of Dynasty as a sacred city which linked the heaven to earth, and earth to heaven.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Kyongju whi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historic and tourist city in Korea should reflect this kind of symbolic meaning of ancient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in case of arranging the urban identity plan to promote the quality of urban environment of Kyongju.

*Key Words : Urban Symbolism, Capital City of Shilla Dynasty, Landscape, Matter and Form. holiness*

## 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경주는 BC 57년에 사로국이라는 고대 국가로 탄생된 이래 신라의 서라벌, 고려조의 경주, 동경, 계림부를 거쳐, 조선조의 경주(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그리고 오늘날의 경주라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중첩되어 누적된 우리 나라의 대표적 역사도시이다. 지금까지 경주라는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신라 왕정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주례고궁기적 도형에 기반을 두고 그것이 구체적인 도시 형태로 조형된 양상 규명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도시형태 외적인 사항으로서의 주변 자연 환경적 특성과 그것이 신라 왕정에 미치는 상징적 의미 또, 그것이 도시형태에 미쳤던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신라 왕정의 주된 경관요소로서의 선도산, 남산, 토함산, 명활상 등의 산과 왕경 중심부의 고분, 왕경 북쪽에 있는 인공산인 독산(獨山)의 조형, 고성수(高城巖), 계림(鷄林)숲, 임정수(林井巖) 등의 각종의 자연물들이 토속신앙적 중요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그들이 신라 왕정의 도시경관 형식에 미쳤던 영향, 또 그것들이 주는 왕정의 상징적 의미 등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들 자연환경이 신라 왕정의 도시경관에 미쳤던 영향과 그 상징성을 밝힘으로써 주례고궁기에 근거를 둔 기존의 신라 왕정 연구에 더하여 신라 왕정 경관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음과 동시에 향후 경주의 도시정체성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기본적인 틀로서 경관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경관인식론에 기초를 두고 연구를 수행한다. 경관인식론이란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경관에는 인간의 개념체계 내에서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로서의 내재요소(내용)와 그 내용에 걸 맞는 형식으로서의 외형요소(형식)가 있으며, 이것이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독특한 경관과 장소성을 형성한다(정기호, 1986: 1991)는 논리구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인간과 자연의 공존적 관계는 일정한 개념체계를 통하여 실제 공간상에 구체화되어 나타나며, 인간이 구성하는 취락이나 건축 등과 같은 경관요소들이 실제 공간상에 구체화되는 것은 바로 자연요소에 제 정신적·물리적 인간의식이 투과된 결과이며, 이것은 그냥 존재하는 자연상태의 경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경관을 형성하는 인간-자연의 매개체로서의 개념체계는 신화, 풍수, 민담, 설화, 등과 같은 틀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따라서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인간이 형성한 경관은 그와 같은 그 시대의 관념체계를 통해 인식·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틀 속에서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서 토속신앙과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연물을 중심으로 각 종의 문헌연구를 통해 그것의 장소성과 경관 형식, 그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총체적으로 도시가 갖는 상징성을 살펴본다.

### 3. 연구의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 있어서는 신라 왕정의 토속신앙적 의미를 지니는 자연환경으로서 산, 숲, 우물과 생활환경으로서 산성과 고분군 등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상들은 삼국유사에 상당한 빈도를 지니고 나타나는 것(김한배, 1993)들로서 신라 왕정 경관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코자 하는 신라왕정의 시간적 범위는 신라가 탄생하는 B.C 57년부터 조방제가 시작되는 AD 467년까지로 한다. 이렇게 시간적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는 AD 467년 조방제 도입이후 신라 왕정의 원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들어 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음양오행에 바탕을 둔 주례고궁이나 불교(AD 527년 공인)보다는 신라의 토속신앙적 세계관이 신라 왕정의 도시경관 형식과 의미에 미친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 II. 연구사

도시적 차원에서 신라 왕경에 대한 논의는 최초 일 본인 藤島核治郎(1969)를 필두로 하여, 中村春壽(1978) 등 일본인 학자에 의해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장순용(1976), 민덕식(1990), 齊藤忠(1981) 등 많은 학자들이 신라 왕경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들 연구의 주된 초점은 중국에서 유래된 주례고공기적 도형에 의한 격자형 도시 패턴인 방리제가 신라 왕경에 적용된 공간범위와 규모, 방리의 크기와 구성, 공간구조의 특성, 주작대로의 위치와 규모, 도시조성방식 등에 두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들 방리제에 의한 왕경의 도시형태 복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신라 왕경은 중국의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적 도시도형을 갖는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조성되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앞서의 도시구조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김경대, 1997).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신라 왕경 형성 배경으로서의 각종의 자연환경과 그것들이 갖는 의미, 그럼으로써 그들이 나타내고자하는 도시의 상징성 등의 관점에서는 연구가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김한배(1993)가 도시정체성 탐구 차원에서 신라 왕경의 경관도형과 형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대 신라 왕경의 도시모형을 침성대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과 방사선을 주 골격으로 하고 통일신라시대를 전후로 하여 전시대의 도시형태에 증첩하여서 정방형의 조방으로 구성된 도시구조를 갖게되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은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 하더라도 기존의 연구 방향에서 진일보된 연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김의 연구 역시, AD 467년에 도입된 조방제 시행 이전의 중요한 경관 요소와 형식, 그리고 그의 의미성으로 본 신라 왕경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즉, 김은 논의의 관점을 음양오행설 및 불교적 세계관에 비중을 둬으로써 불교 도입(AD 527년) 이전에 품미하였음은 물론이고, 또 그 이후의 주례고공기와 불교 사상의 도입에 따른 왕경 경관의 형성 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신라의 토속 신앙적 우주관과 그것이 신라 왕경의 도시 형식과 의미성 또는 상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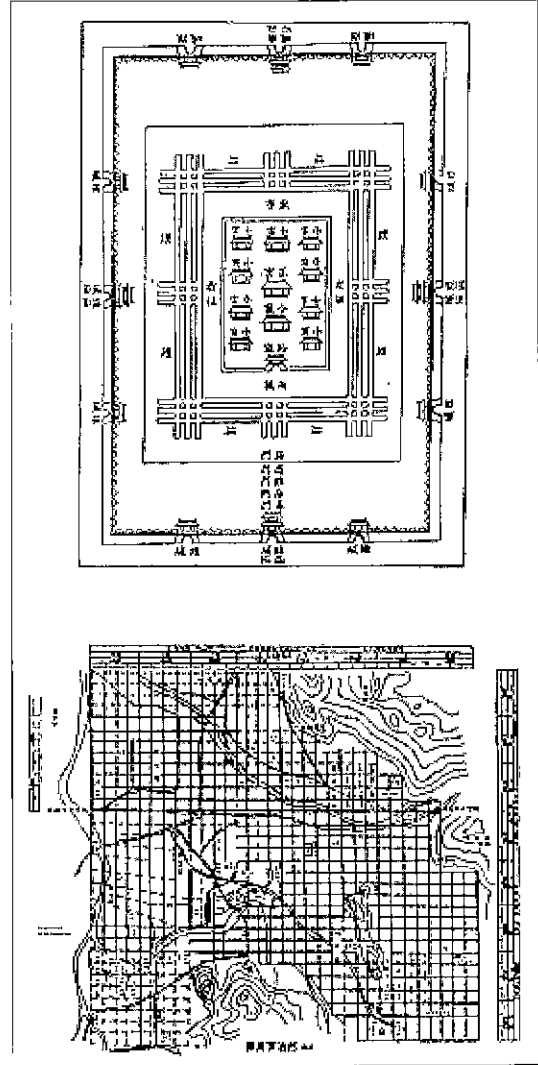


그림 1. 주례고공기와 신라 왕경의 형태  
(위로부터)(자료·장순순(1978))

## III. 신라의 토속 신앙과 경관 매체

### 1. 신라의 토속 신앙과 사상

종교는 인위적 종교와 자연적 종교로 구분되어 진다. 인위적 종교란 교조에 의한 교리가 문서화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인위적 조직을 갖는 종교이다. 반면 자연적 종교란 경전이나 체계화된 조직 없이 인위적 상황이 배제된 자연적 상황 속의 종교이다. 이와 같이 자연인으로서 민간인에 의해 생활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종교현상으로는 조상숭배, 자연숭배, 주물숭배, 정령숭배, 토탑, 애니미즘 등이 있다. 토속신앙이란 바로 이와 같이 민간인에 의해 자연적인 종교로서의 의미가 있는 종교를 일컫음이라 할 수 있다.

고대에 있어 토속신앙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주로 자연의 신비와 공포로부터의 극복, 먹을 것의 풍요에 대한 기원에서부터 시작(백유선, 신부식, 임태경, 1999)되어 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부족의 유대감 유지와 엄격한 통치수단으로서의 법속과 함께 종교 의식으로 발전해 가게 된다.

고대 신라에 있어서도 토속신앙은 조상숭배, 자연숭배, 정령숭배, 토탑, 애니미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경상북도, 1986). 고대 신라에 있어 이러한 토속신앙이 하나의 사상으로 발전된 것은 강림신화와 관련된 천산(天山)사상과 계세(繼世)사상과 관련된 천상타계관(天上他界觀)을 들 수 있다. 강림사상이란 자연숭배 사상의 일환으로 하늘을 숭배하여 왕은 하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으로서 태양과 산을 숭배하는 사상이다. 신라의 육부춘장을 비롯, 박혁거세, 그 부인인 알영부인, 김알지 등에 관한 신화가 천상사상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계세사상(繼世思想)과 관련한 천상타계관이란 강림신화의 반대로서 死者의 영혼을 다음 세계로 보내려는 육구와 함께, 하늘에 이상세계가 있음을 상정하고 인간은 이 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내려와 살다가 사후 다시 이 세계로 돌아간다는 개념의 사상이다. 삼국유사에 박혁거세가 죽은 후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 문무왕이 죽어서 용이 되었다는 기록 등은 바로 이와 같은 계세사상과 천상타계관을 나타내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 2. 토속신앙과 경관 매체

고대 신라에 있어 강림사상과 천상타계관의 의미를 갖는 매체로서 나타나는 대표적 경관요소로는 산(바위), 숲(나무), 우물 등을 들 수 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 육부춘장이 각 각 산을 통해 하늘에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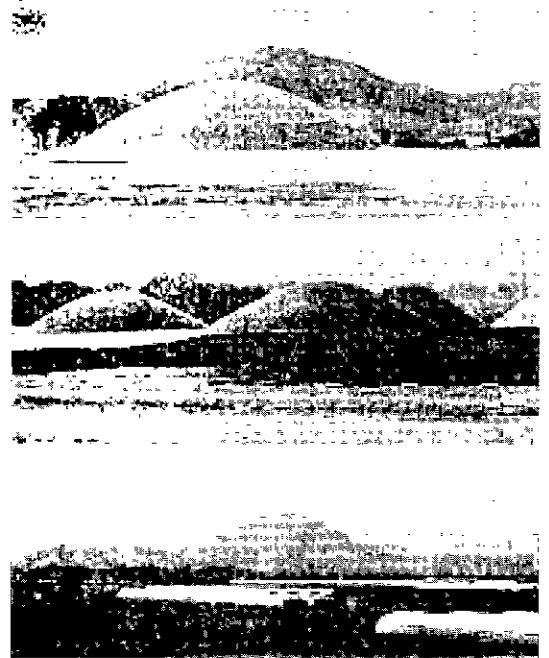


그림 2. 고분과 선도산, 고분군과 숲, 망산의 모습(위로부터)

려왔고 박혁거세와 김알지 왕이 나정숲과 계림숲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박혁거세와 그의 왕비인 알영부인이 우물이 있는 숲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삼국유사에 경관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한자들의 빈도를 살펴보면(김한배, 1993) 鷄, 陵, 瞻 등의 한자가 불교를 상징하는 寺자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경관 매체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鷄자는 계림숲과 관련되어 있는 한자이고 陵자는 신라왕경의 중심부를 비롯하여 왕경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고분군과 관련된 한자이다. 瞻자는 바라본다는 뜻으로서 별을 바라본다는 침성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신라 왕경에 있어 이와 같이 산, 숲, 우물, 능, 침성대(조세환, 1998b) 등은 바로 신라의 토속신앙의 내재적 의미가 경관형식으로 나타난 대표적 경관요소라고 할 수 있다.

## IV. 신라 왕경의 도시상징성

### 1. 신라 왕경 경관 요소의 상징성

#### 1) 산의 상징성

고대에 있어서 산은 사람이 거주하는 평원 위로 우뚝 솟아올라 있고 접근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으며 위험한 장소이므로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다 이것은 산을 신성하게 대하는 인간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산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또한 세계의 중심점이고 축이며, 인간의 영혼이 한 우주차원에서 다른 우주차원으로 이동해 가는 성스러운 힘으로 인식지어진 장소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이 시대의 산에 대한 주된 의식은 하늘과의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천산사상(天山思想)<sup>14)</sup>으로 발전하였고

한편, 박용숙(1976)은 샤머니즘을 줄기로 한국의 고대문화를 논하면서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즐거움을 이룬다고 보고, 서라벌의 삼산(명활산, 남산, 선도산)의 구조로 경주의 도시구조를 논하면서 三山은 우주 산으로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신전으로 보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경주에 있어 이러한 산에 대한 태도는 더 발전해서 후일에는 종교적 의식의 장소로 변하여 갔다.

## 2) 숲의 상징성

단군신화의 신단수(神檀樹)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고대 신정사회에서 나무는 신성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숲이 갖는 토속 신앙적 의미를 보면 숲은 신이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매년 제례를 행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숲이 동물, 적과 같은 위협 대상이 숨어 있는 장소로 보아 그 속에는 신과 같은 어떤 존재가 살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숲은 신과 같은 능력을 갖는다고 믿는 것이다. 더욱이 숲은 숲이 갖는 수직적 구조에 의해 천계(天界)와 지계(地界)를 연결하는 우주 축과 갖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신이 하강하는 통로로, 또한 천상으로 연결되기에 성스러운 장소로 상징되었다(장동수, 1994).

## 3) 고분군의 상징성

신라 왕경의 중심부에 있는 고총고분은 신라왕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왔다. 이 고총고분의 반구형 형식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작위적으로 만들었던 형태로 분석된다. 즉, 반구형 형태의 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분의 아랫부분에 의회석을 두르고 봉토의 층층에 점토층을 두어 그 형태를 유지(최병현, 1992)하고 있다는 데에

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묘제의 원형이 되는 이와 같은 봉분형 무덤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신라 왕경 주변의 산의 물리적 형상과 그 이미지에서 모습을 따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15)</sup>(조세환, 1999a). 자연의 형태를 관찰하여 이것을 합리화시켜 이상적인 형태로 만드는 인간의 원초적 디자인 능력(안병의, 김광문 역, 1980). 맥락에서 볼 때 신라 왕경의 고분군은 바로 이와 같이 주변 산의 형태를 차입해서 봉분의 형태로 만들었을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그림 2 참조).

문화권이나 시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성과 보편성을 지닌 모습이나 형태를 띠는 원형<sup>16)</sup>(정기호, 1991)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고분군의 형식은 산을 형상화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왕이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왔듯이 죽어서 봉분을 통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장소<sup>17)</sup>로 인식함과 동시에 천계(天界)와 지계(地界)를 왕래하는 신으로 조상을 높이고 보호함으로써 종족이나 국가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원형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4) 우물의 상징성

고대에 있어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그래서 물이 솟아 나는 우물은 등서양을 막론하고 신성시되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고대 신라에 있어 숲과 우물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다. 숲 속에 우물이 있다하여 임정수라 이름 붙여진 숲이 있다는 것을 비롯하여, 박혁거세가 나정(羅井)이라는 우물이 있는 숲에서 지상에 내려왔고, 그 부인인 알영부인 역시 오능숲에 있는 알영정(閼英井)에서 태어났다. 이와 같이 숲과 우물이 천상과 지상의 연결처로 장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맥락에서 보면 고대 신라에서의 우물은 풍요의 개념과 더불어 바로 신성함(경주국립박물관, 1995)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산성의 상징성

신라왕경의 산성은 명활산성이 AD 554년, 남산산성은 AD591년에 축성한 것으로 동경잡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선도산성은 언제 축성한 시기는 알 수 없고, 다만, 진평왕 15년에 개축하였다고 되어있다.(장순용, 1976) 고대 신라의 산성 중 실제 군사방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산성은 명활산성(경주상공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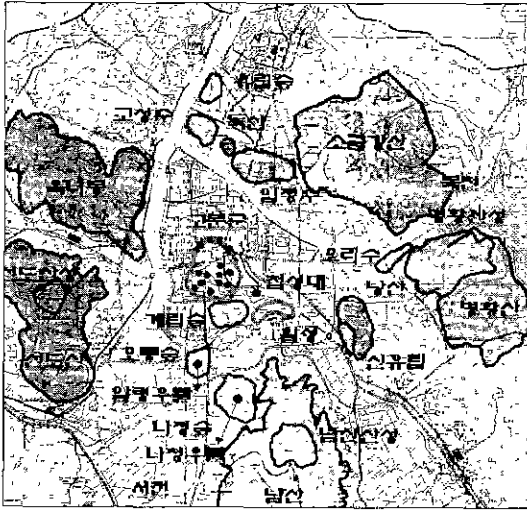


그림 3. 신라 왕경의 경관 요소 입지

소, 1997) 뿐이다. 이들 3개 산성의 축성 연대를 보거나 축성의 평면 형태를 보면(그림 3 참조) 명활산성 및 남산성은 그 시기나 규모에 있어 군사방어 용도로 축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서쪽의 선도산성이나 북쪽의 인공산인 독산성(높이 : 27m)의 경우는 축성 연대가 진평왕 이전에 축성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 연대는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양 산성의 규모가 현저히 작을 뿐만 아니라 절적인 존재로 존재하며, 산봉우리에 머리머처럼 산성을 두르고 있어 단순한 군사적 방어 목적으로 보기에는 무리<sup>9)</sup>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수록 그것의 본질은 서로 얽혀있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된 조합(정기호, 1991)으로 이루어진다는 맥락에서 볼 때, 신라 왕경의 산성은 유사시 군사목적용 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라 시대에 산을 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장소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신이 강림하는 산의 정상부를 보호할 목적의 복합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을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의 기원으로서 고인돌 주변에 열상으로돌을 심어 성역의 경계로 표시한 것(민경현, 1991)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산의 신성함에 대한 단순한 인식차원에서 그 신성함을 지키고 기원한다는 의식 차원으로 승화 발전된 것으로 유추할 수도 있다<sup>10)</sup> 즉, 산의 신성함을 보호함으로써 천신(天神)의 힘을 통해 왕경을 보호하려는 의식<sup>11)</sup>의 발로와 같은 샤머니즘적 이유에서도 그 연

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 2. 경관 요소의 입지와 도시 상징성

신라 왕경에서 산, 숲, 우물, 능 등의 경관요소들의 입지 현상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되는 점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3 참조). 첫째는 이들 요소간의 지리적 관련성으로서 산, 숲, 능, 우물 등의 경관 요소가 같은 장소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숲과 무덤, 숲과 산이 함께 입지하고 숲과 우물이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계림 숲과 김씨 계의 고분군, 오름 숲과 박혁거세의 무덤을 비롯하여 오늘 날 경주에 있는 모든 신라 왕들의 무덤 주변에 있는 숲의 존재, 남산에 인접하여 나정(雜井) 숲이 있고 인공적으로 조성한 독산 주위에 고성수(高城數)와 임정수라는 숲이 있는 것,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다하여 이름 붙인 나정 숲, 오름 숲 속의 일명정, 숲 가운데 우물이 있다고 해서 임정수(林井數)라고 이름을 붙이는 등은 바로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라 왕경은 바로 이러한 경관 요소, 또는 요소들의 집합에 의해 위요되고 중심이 잡혀져 있다는 점이다(그림 4 참조). 즉, 동으로는 소금강산(높이 : 142m)과 임정수, 명활산과 산성(높이 : 268m), 남산과 신유림, 남으로는 남산(높이 : 495m)과 나정 숲, 서로는 선도산(높이 : 380m)과 옥녀봉(높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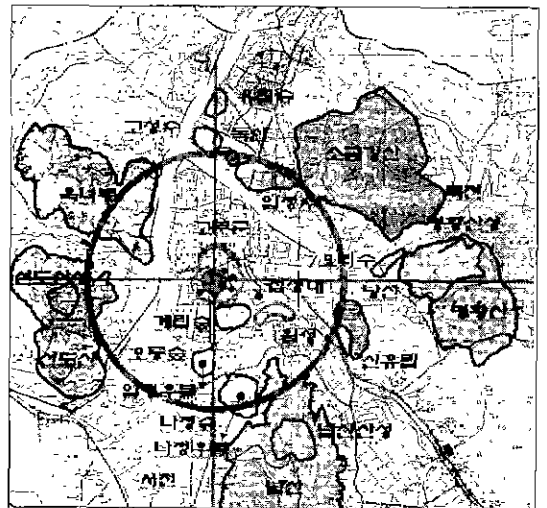


그림 4 신라 왕경의 경관 형식(위요와 중심)

214m), 북으로는 독산(높이 : 27m)과 고성수 등에 의해 위요되어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왕경을 안쪽으로 감싸고 있는 산들 중 북쪽에 있는 독산의 존재이다. 이 산이 흥미로운 점은 왕경의 북쪽으로 열려있는 지역에 인공적으로 만든 산이었고, 그 위에 고성(高城)이라는 산성을 쌓았다는 점과 그 주변에 고성수, 임정수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또한 신라 왕경의 지리적 중심부에는 김씨계의 고분군과 계림숲, 그리고 첨성대가 존재하고 있어 공간적 중심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4 참조).

이와 같은 경관 요소의 입지적 분포를 분석해 보면, 동, 서, 남, 북과 중심부에 산과 숲, 농과 우물 등에 의해 각각 신성성의 의미를 지니는 강력한 장소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결국, 이들 장소성 형성을 통해 신라 왕경을 사방으로 위요함으로써 신라 왕경 자체를 신성에 의해 풍요로움과 안녕을 축복 받는 땅으로 상징코자 의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신성성과 풍요의 기원은 특히, 신라 왕경을 위요하는 주변 장소를 통해 하늘의 신이 하강하고, 중심지에 입지하는 농과 숲의 장소를 통해 다시 승천하는 경관 형식을 통해 그 의미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신라 왕경의 이러한 위요와 중심의 경관 형식은 고대도시의 일반적인 경관형식으로 나타나는 경계와 중심을 상징하는 templum(김한배, 1993) 등의 예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 숲, 우물, 등에 의해 둘러싸이는 신라 왕경의 위요는 단순한 경계의 의미를 넘어 신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 그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신라 토속신앙의 경관 매체로서의 산, 숲과 같은 자연적 경관요소와 고분군, 산성, 우물 등과 같은 인공물을 대상으로 경관인식론에 근거한 경관의 형식과 그 의미를 분석한 결과 AD 467년에 조방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신라 왕경은 신이 강림하는 신성스러운 산과 숲에 의해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싸인 장소였다. 특히, 북쪽에 있는 독산은 남산, 선도산, 명활산, 남산에 더하여 신라 왕경을 둘러싸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가산

(假山)으로서 왕경을 신성물로서 둘러싸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개연성이 있었다.

이렇게 신라 왕경을 둘러싼 산과 숲이 강림신화와 관계되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소로 인식되는 반면, 신라 왕경의 중심부에 있는 고분군은 다시 천상단계관에 의해 승천이라는 신성스러운 의식(儀式)의 의미를 나타내는 독특한 경관 형식을 취하고(봉분) 형태의 원형은 강림신화와 관련 있는 산의 형태에 모티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결국 신라 왕경은 천계와 지계가 상호 연결되고 순환되는 우주의 중심적 의미를 지니고, 이로 인해 왕경 자체를 하나의 신성의 도시로 의식화하고 상징화함으로써 왕국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로 유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신라 왕경의 경관 형식과 상징적 의미는 향후 경주의 도시 정체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과 산성, 숲, 고분군, 등에 의해 도시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계획과 함께, 숲과 우물, 숲과 고분군, 숲과 산 등과 같은 경관형식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 마련 및 이벤트 행사 개최 등과 같은 소프트한 계획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1 후일, 농경사회로 발전해 감에 따라 산이 지니고 있는 힘을 인지함으로써 천산사상은 숭산사상(崇山思想)으로 변하여 갔다. 이러한 결과로 후일 고려시대에 와서는 왕은 천신이 아닌 산신과 용신의 후손으로 바뀌어 간다

주2. 신라 왕경의 정치적 중심지인 반월성에서 시각적 정체성이 높은 주변 산은 방산, 선도산, 옥녀봉, 문무왕릉 뒷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산의 모습은 고분의 모습과 흡사해 마치 고분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 실제로 천마총, 황남대총, 봉황대 등의 무덤위의 산들의 시각구조를 분석해보면 높이 · 밑면이 1 : 4로서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3. 봉분의 형태가 반구형을 갖는다는 것은 첫째, 원의 형태는 일체감 또는 공동체감을 상징하고 둘째, 봉분을 쌓는다는 것은 축적, 저장과 함께 높이는 행위의 일반적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4.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도는 바로 이와같은 승천의 의식을 잘 설명하고 있다. 천마도는 발굴 시 유물이 내장된 목곽의 제일 위 부분에 없었어 있었고, 마구 등의 유구는 봉분의 제일 위 부분에 별도로 매장되어 있다. 이것은 사자가 천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5. 연결 통로도 없이 좁은 산 정상에 산성을 두르는 것은 포위될 경우 물 및 식량 공급 등의 차원에서 매우 불리하다

- 고 할 수 있다.
- 주6. 따라서 꼭 같은 주례고공기에 의해 신라 왕정에 조방제가 도입되면서 중국의 장안성이나 일본의 평성경과 다르게 도시방어를 위한 나성을 만들지 않은 이유 중에는 물론 물리적 환경 조건의 이유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서 이와 같은 왕정을 둘러싸는 신성한 산과의 공간적 단절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 주7. 죽어서 호국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조성된 문무왕의 수증릉이 바로 이와 같은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인용문헌

1. 경상북도(1986) 경주지역 문화유적보존개발계획. 삼영문화사.
2. 경주국립박물관(1995) 경주이야기
3. 경주상공회의소(1997) 도리천의 왕릉. 상의중 협정보 제 110호
4. 김경대(1997) 신라왕경 도시계획원형탐색과 보존 체계설정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5. 김한배(1993) 한국도시경관의 변천특성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민경현(1991) 한국정원문화-시원과 변천론-. 예경산업사.
7. 민덕식(1990)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시고(상,하)『사총』 제35, 제36집 고려대학교 사학회.
8. 박용숙(1976) 한국고대미술문화사론. 서울. 일지사.
9. 백유선, 신부식, 임태경(1999)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서울 : 두리.
10. 안병문, 김광문 역(1980)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기능, 형태, 디자인- 서울·형제사.
11. 장동수(1994) 한국 전통도시조경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2. 장용순(1976) 신라왕경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징기호(1986) 자연과 인간의 의식관계로 본 취락경관에서 내적 의미에 관하여. 한국조경학회지 14(2)
14. \_\_\_\_\_(1991) 경관에 내재된 내용과 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9(2).
15. 齊藤忠(1981) 고대한국문화와 일본. 원광대학교 출판부.
16. 조세환(1998a) 경주시가지 고분군의 경관 해석.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창간호.
17. \_\_\_\_\_(1998b) 천성대의 경관인식론적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제26권 3호.
18. 최병현(1992) 신라고분연구. 서울 : 일지사.
19. 한국경신문화연구원(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 藤島核治郎(1969) 朝鮮建築史論. 서울 경인문 회사.
21. 中村春壽(1978) 日韓古代都市計劃 大興出版